

# 민족정체성에 따른 재일동포인식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黄慧瓊\*

(e-mail: hhk5500@daum.net)

---

## 目次

---

1. 서론
  2. 민족정체성 개념 및 재일동포 역사와 현황
  3. 조사방법과 조사항목
  4. 재일동포인식에 관한 차이분석 결과
  5. 결론
- 

## 1 서론

재일동포에 관한 관심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재일동포하면 신격호 회장과 같은 기업인 등의 극소수만 떠올렸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재일동포에 관한 특집, 재일동포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많이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재일동포들은 한국인에도 일본인에도 속할 수 없고 한국에서는 낮설고 잊혀진, 일본에서는 차별과 무시의 존재,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에서 한류 붐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일본에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급상승하였고, 일본에서 차별과 무시 때문에 자신이 재일동포임을 숨겼던 사람들도 자신이 재일동포임을 자신 있게 드러낸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일본인에 있어서 한류가 한국인에 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

---

\* 남서울대학교 강사, 일본학전공

며, 또한 일본식민지 이후 1세기가 넘도록 일본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재일동포에 관한 인식도 무관심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였다. 친근감을 느끼지 않았던 일본인들도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 시기는 재일동포라는 존재가 일본인에게도 한국인에게도 주목받은 시기로 볼 수 있다(黃 2008).

재일동포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교육면·사회면·정치면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1970년대까지는 일제강점기의 상징인 강제연행에 관한 문제(朴 1965)가 거론되어왔고, 이어서는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大沼 1980), 차별문제(辛 1983), 재일동포자녀의 교육상황의 적응 및 실태에 관한 교육문제(申 1982, 馬越 1989), 지역사회참여 및 민족운동(高橋 1996, 五味田 1996)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전후로 민족운동, 민족교육, 귀국과 귀화의지 등의 의식에 관한 조사가 행해졌으며, 이후에 재일동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原尻 1986, 福岡 1993, 黃 2001, 黃 2002)가 계속되고 있다. 근래에는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문제(朴 1999, 山田 2010), 공생사회 문제(金 2002)가 대두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재일동포 고령자의 복지에 관한 연구도 되고 있다(趙 2009, 黒木 2011, 仲尾 2013). 최근에는 과거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정책도 개선되고 있어 민족운동보다는 앞으로 자손들의 생활터전인 일본에 어떻게 공생할 것인지, 일본사회에서 의무만이 아니라 어떻게 권리를 추구하고 있을지에 관한 연구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일본에서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이나 현황, 재일동포의 정체성,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참정권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한국 사람들이 재일동포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이전 논문(黃 2014)에서 한국대학생들이 재일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민족정체성 강약에 의해서 재일동포에 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민족정체성 개념 및 재일동포 역사와 현황

### 2-1. 민족정체성 개념

에스니시티의 개념과 민족정체성의 개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에스니시티 개념의 핵심이 되는 것이 민족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 에스니시티 연

구 초기에는 객관적요인(Isajiw, W.W. 1979)이 중시되었지만 현재는 심리적·주관적 요인(Barth, F. 1969, 綾部 1985, 梶田 1996)이 중시되어, 에스니시티가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 객관적 측면에서 본 이론, 주관적 측면에서 본 이론, 이들 두 개를 절충하자(Cohen, R. 1978)는 이론이 있다.

민족정체성이란 민족적 특성 또는 소속의식을 가리킨다. 민족정체성 역시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객관적 특성이라는 측면과 민족적 차원에서 자기존재를 누구로 인식하는가의 주관적 민족의식 측면과 두 개를 절충해서 보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데이비스(Davis)에 의하면<sup>1)</sup> 민족정체성은 자기집단의 문화를 자기집단기준의 판단에 의해 그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감을 갖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집단을 타집단과 구별하려는 감정으로 보고 있다. 이 정의를 토대로 에브치(江瀨 1982)는 민족정체성의 성립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는 민족정체성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성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집단의 구성원은 혈연적·문화적·사회적으로 같은 뿌리의 특징을 공유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개인이 동족의식에 의해서 그 집단에 대한 일체감을 갖고, 집단의 일원이라는데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스파이서(Spicer)<sup>2)</sup>에 의하면 민족정체성의 본질적 특징은 개개인이 속한 민족의 상징과의 인격적 일체감이다. 특정의 민족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은 출생에 의해서 귀속적지위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집단과 타집단의 구별이 개인의 상호작용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호시노(星野 1985)는 민족정체성의 임의성을 주장하고, 민족 집단의 귀속의식은 시간과 장소에 항상 변함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민족정체성은 동일한 전통적인 문화·생활양식을 갖는 집단이 동일한 귀속의식을 갖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집단과 타집단을 구별하는 감정으로 볼 것이다.

## 2-2. 재일동포 역사와 현황

### 2-2-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역사

재일코리아인 형성 과정에 관해서 朴(1979)과 杉原(1991)의 연구에 근거해 도향

1)江瀨一公(1982)「日系アメリカ人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する考察」, 綾部恒雄編『アメリカ民族文化の研究』弘文堂, 142頁 참조.

2)江瀨一公(1982), 앞의 책 참조.

현황을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 (1909년 이전)는 한일합병 이전으로 조선인은 외국인 노동자로, 일본 거주자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 (1910-25년, 유치기)는 전기와 후기로 세분된다. 전기 (1910-19년)는 1910년 한일합병으로 인해 법적으로 조선인의 일본 입국은 자유롭게 됐지만 실제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인구가 부족한 일본 기업이 조선 노동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1919년까지 거주 인구는 3만 6천명이고, 남성 혼자서의 이주가 대부분이었다. 후기 (1920-25년)가 되면 1918년 미국 파동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식량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20년에 조선총독부가 내놓은 산미증식계획으로, 조선 농촌사회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급증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1925년에 18만 7천명에 이른다.

세 번째 시기 (1926-38년, 억제기)는 1926년부터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조선농가에서 살기 힘들게 되어, 일본에 건너가는 사람이 많았다. 1931년 만주사변을 거쳐 국가총동원법 시행직전까지 거주인구의 변화는 1930년 약 41만 명에서 1938년 약 88만 명으로 급증했다.

네 번째 시기 (1939-45년, 강제징용기)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 및 1939년 국민징용령을 받아 이른바 강제연행이 열린 시기로 거주인구의 연평균 증가 수는 20만 명이 넘는 방대한 것으로, 1945년에는 약 210만 명에 이른다.

## 2-2-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 및 현황

1945년 일본의 패전당시 재일조선인은 약 210만 명에 달했다. 그 중 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국했지만 여러 사정이 있어 남은 사람도 많았다. 이 사람들과 후손이 남아 일본에 정착하게 되어, 전후의 인구는 60만 명 안팎을 지속하고 있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 재일조선인은 일률적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역사적인 특수 조건을 무시하고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게 되었다. 즉, 일본에서 약 반세기 살았던 재일조선인과 그 자손은 위상이 변하고 외국인으로 처우 받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각종 제도적 제한, 차별이 생겨났다. 동화·억압 정책은 전쟁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일본인의 조선인 멸시와 차별은 끊이지 않았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참정권 문제·고용·생활 등의 차별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은 차별에 저항하며 생활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3. 조사방법과 조사항목

#### 3-1. 조사방법 및 대상

본 논문은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동양미래대학, 충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남서울대학교, 중부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11년 6월부터 7월, 그리고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인터뷰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711부를 회수 했고, 그 중 불성실한 설문지 14부를 제외하고 697부를 유효한 설문지로 확보했다.

#### 3-2. 조사항목 및 분석

조사항목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사항 및 가치관·민족의식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재일동포에 관련된 사항으로 크게 분류했다.

우선 기본사항으로 「성별」, 「연령」 2항목, 그리고 대학생들의 가치관 및 민족의식이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되어 그것에 관련된 문항으로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경험」, 「국내외에서 재일동포 만난 경험」, 「재일동포는 어느 나라 사람」,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도」, 「한민족이라 생각하는 빈도」,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긍지도」를 포함한 10항목, 재일동포에 관련된 문항으로 12항목, 총 24항목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작성했다.<sup>3)</sup>

본 논문에서는 민족정체성에 의한 재일동포의 인식을 보기위해서 우선, 민족정체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항목과, 재일동포에 관련된 사항으로,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문제, 재일동포가 한국에 대한 관심문제, 국가 간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 재일동포에 관한 정책, 4가지로 나눠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회수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SPSS를 이용하여, 민족정체성 강약과 항목 간의 관련성을 보기위해서 카이스퀘어( $\chi^2$ ) 검증에 의해서 분석하였다.

#### 3-3. 민족정체성 지표 설정

한국사회는 예전부터 단군의 자손이라는 혈연적 문화적 공동기반과 단일국가 안에서 살아온 역사 속에서 민족적 동질성과 공동운명의식을 키워왔다. 혈연적

3) 이 조사항목들의 빈도분석은 전 논문 黄(2014)참조.

뿌리가 같은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이 한국인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다.

배(1994)에 의하면 한민족은 독립정신과 귀속의식이 강하며 타민족들에 비해 뿌리가 깊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순수성이 높다고 한다.

재외한인학회(2002)에서 민족정체성이란 민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의식으로 민족이 공유한 역사적 경험과 전통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포함되고,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에 대한 자부심, 집단이 공유하는 성격적 특성이 포함된다. 민족정체성의 문제를 한민족에 한정시켰을 때 한민족이 자기들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문화를 어떻게 유지하며, 집단적 성격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인식의 강도에 따라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나 약하나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민족정체성에 따른 재일동포에 관한 인식을 검토하기 위해서 민족정체성의 지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민족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함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星野 1985).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민족정체성이 재일동포에 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족정체성을 강약으로 나뉘서 논리를 전개 시 문제점은 가지고 있으나, 분석을 위해 민족정체성의 지표를 고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표를 고정해, 민족정체성 강약으로 나뉘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러면, 민족정체성의 대표적인 지표로 어떠한 것이 적당한 것일까?

우선 민족정체성이라 하면 혈연적 뿌리가 같은 한민족이라는 자긍심, 자국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떠 올릴 수 있고, 한국국적이나 한국어 사용, 한국의 공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의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양(2009)의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한민족정체성 중 단일민족이라는 데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은 다문화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낮아지고, 이주자의 시민권을 반대하여 이주자 등의 입국은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필자는 위 선행연구에서 한민족정체성 측정문항으로 사용한 문항중의 하나인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긍지도」를 민족정체성의 지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민족정체성의 지표로서 타당한지 좀 더 객관성을 갖기 위해 한가지 더 살펴보고자 한다.

민족정체성이란 민족이 공유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 공유문화에 대한 자부심, 집단이 공유하는 성격을 말한다(재외한인학회 2002). 민족정체성이라 하면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를 누구나

떠올린다. 따라서 여기에서 필자는 민족정체성 지표로 설정한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긍지도」와 「역사긍지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결과, 표1과 같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역사에 대한 긍지에 있어서도 매우 자랑스러워했으며,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긍지가 없는 사람은 역사에 대한 긍지에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1 한민족 긍지도/역사긍지도

한민족 긍지도	역사긍지도			
	매우 자랑스러움	대체로 자랑스러움	보통	부끄러운편
커다란 긍지	56.3%	35.6%	6.9%	1.1%
어느 정도 긍지	11.6%	52.8%	30.6%	4.9%
별로 없다	2.5%	26.1%	57.8%	13.7%

\*\*\*p<0.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긍지의 강약이, 같은 혈연관계인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하 논문에서는 한민족이라는 사실 긍지도에 「커다란 긍지」는 「민족정체성 강」, 「어느 정도 긍지」는 「민족정체성 중」, 「별로 없다」는 「민족정체성 약」으로 보기로 한다.

## 4. 재일동포인식에 관한 차이분석 결과

### 4-1.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문제

우선, 민족정체성 강약에 의한 재일동포에 대한 친근감 및 관심도를 보기로 한다.

표2와 같이 민족정체성 강약과 재일동포에 대한 친근감 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재일동포에 대해서 「아주 가깝게」와 「조금 가깝게」의 수치가 높았으며, 민족정체성이 약한 사람일수록 「별로」, 「전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재일동포에 대한 친근감이 높았으며,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친근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민족정체성/재일동포에 대한 친근감 정도

민족 정체성	재일동포에 어느 정도 친근감을 느끼는가				
	아주가깝게	조금가깝게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별로	전혀
강	8.0%	26.4%	40.2%	21.8%	3.4%
중	1.6%	17.9%	49.3%	27.4%	3.8%
약	0.6%	14.3%	40.4%	37.9%	6.8%

\*\*\*p<0.001

또한, 민족정체성의 차이가 재일동포 문제를 얼마나 우리 일로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보기로 한다. 표3과 같이 민족정체성 강약과 재일동포 문제를 얼마나 우리 일로 생각하는가에 관해서 살펴본 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많았으며, 둘을 합하면 약 51.0%로 가장 많았고,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표3 민족정체성/재일동포 문제를 얼마나 우리 일로 생각하는가

민족 정체성	재일동포 문제를 얼마나 우리 일로 생각하는가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관심없다	전혀 무관하다
강	6.9%	43.7%	27.6%	18.4%	3.4%
중	4.3%	34.8%	38.6%	21.1%	1.3%
약	2.5%	20.5%	29.2%	41.6%	6.2%

\*\*\*p<0.001

「별로관심없다」와 「전혀 무관하다」가 많았고, 둘을 합하면 약 48.0%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재일동포의 문제를 우리의 일로 생각하고 있고,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재일동포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민족정체성/재일동포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민족 정체성	재일동포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한국인	일본인	그냥 외국인	모르겠음
강	54.1%	29.4%	7.1%	9.4%
중	49.3%	23.0%	9.9%	17.7%
약	31.2%	40.8%	13.4%	14.6%

\*\*\*p<0.001



재일동포를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흔히, 젊은이들은 한국인, 일본인, 그냥 일반 외국인 등등의 답변을 한다. 민족정체성 강약에 따라서 재일동포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 결과, 표4와 같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한국인이라고 생각했고,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일본인이 많았고, 그냥 외국인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

#### 4-2. 재일동포가 한국에 대한 관심문제

이번에는 표2와 표3에 대비되는 문제로 재일동포가 한국·한국인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5와 같이 민족정체성 강약과 재일동포가 한국·한국인에 대한 관심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매우관심」이 가장 많았으며,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별로 관심없다」와 「전혀 관심없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민족정체성/재일동포가 한국·한국인에 대한 관심

민족 정체성	재일동포가 한국·한국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는가				
	매우 관심	어느 정도 관심	보통이다	별로 관심없다	전혀 관심없다
강	12.9%	35.3%	34.1%	15.3%	2.4%
중	7.6%	46.0%	32.5%	13.2%	0.7%
약	4.3%	26.7%	37.3%	28.6%	3.1%

\*\*\*p<0.001

표2와 표3에서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재일동포에 친근감을 느끼고, 재일동포 문제를 우리의 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재일동포도 한국·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민족정체성이 약한 사람일수록 재일동포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으며, 재일동포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재일동포가 한국·한국인에 대한 관심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족정체성 강약과 재일동포의 한국과 일본 간의 친근감 정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6과 같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일본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민족정체성 강약과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5와 같이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재일동포가 한국·한국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일동포가 한국과 일본 간의 친근감정도에 있

표6 민족정체성/재일동포의 한국과 일본 간의 친근감 정도

민족 정체성	재일동포는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한국	일본	똑같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강	20.7%	48.3%	19.5%	11.5%
중	14.3%	40.0%	26.2%	19.5%
약	10.6%	44.7%	24.8%	19.9%

어서는 일본을 더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민족정체성 강약에도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일본을 더 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4-3. 국가 간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

다음은 국가 간의 관계가 그 나라 민족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7 민족정체성/한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우호관계

민족 정체성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와 더 우호적이라 생각하는가			
	미국	일본	둘 다 똑같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강	74.4%	0.0%	18.6%	7.0%
중	66.1%	2.9%	14.8%	16.1%
약	60.9%	8.7%	15.5%	14.9%

\*\*p<0.01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역사적인 문제로 지금도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표7과 같이 민족정체성과 한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우호관계에 관해서 살펴본 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정체성을 기준으로 보면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미국이 가장 많았고,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일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조사에 의하면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일본과의 과거사에 더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민족정체성 강약이 일본과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와 재미동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표8). 그 결과, 민족정체성과 재일동포와 재미동포에 대한 친근감 정도와의 차이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 간의 관계가 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정체성 강약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인에 대한 생각도 나빠지는가에 관해서 표9를 통해서 보면 둘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표8 민족정체성/재일동포와 재미동포에 대한 친근감 정도

민족 정체성	재일동포와 재미동포 중 어느 쪽에 친근감을 더 느끼는가			
	재일동포	재미동포	둘다 똑같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강	19.5%	11.5%	57.5%	11.5%
중	17.7%	10.5%	59.9%	11.9%
약	15.5%	8.1%	54.7%	21.7%

다.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매우 그렇다」가 많았으며,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표7과 같이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한국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해 일본과의 우호관계가 미국에 비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도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매우 그렇다」가 많았으며,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일본인에 대한 생각도 나빠지고,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9 민족정체성/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인에 대한 영향

민족 정체성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인에 대한 생각도 나빠지는가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강	36.8%	39.1%	9.2%	12.6%	2.3%
중	26.2%	49.9%	11.0%	11.0%	2.0%
약	19.9%	44.1%	11.2%	21.1%	3.7%

\*p<0.05

이번에는 민족정체성 강약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재일동포에 대한 생각도 나빠지는가에 관해서 보기로 한다. 표10과 같이 두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표9와 비교해보면 민족정체성 강약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민족정체성/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재일동포에 대한 영향

민족 정체성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재일동포에 대한 생각도 나빠지는가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강	4.6%	21.8%	35.6%	29.9%	8.0%
중	3.1%	16.1%	35.8%	38.7%	6.3%
약	5.0%	16.1%	34.8%	35.4%	8.7%

#### 4-4.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

다음은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11 민족정체성/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생각

민족 정체성	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거주국에서 모범시민으로 정착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매우 옳다	대체로 옳다	한민족 공동체 정책이 우선	잘 모르겠다
강	11.5%	52.9%	17.2%	18.4%
중	4.7%	45.1%	20.6%	29.6%
약	5.6%	41.9%	18.1%	34.4%

\*p<0.05

민족정체성 강약에 따라서 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생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둘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과 같이 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거주국에서 모범시민으로 정착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생각으로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대체로 옳다」와 「매우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잘 모르겠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모범시민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의 수치를 보면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역으로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민족정체성 강약에 따라서 정부가 재외동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할 부분에 관해서 관련성을 보았다(표12). 그 결과, 둘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민족정체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재외국민 보호활동」·「거주국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표12 민족정체성/ 정부가 재일동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할 부분

민족 정체성	앞으로 정부가 재일동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족정체성	거주국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재외국민 보호활동	기타
강	48.2%	24.7%	22.4%	4.7%
중	36.3%	29.7%	31.5%	2.5%
약	28.0%	30.4%	36.0%	5.6%

\*p<0.05

무엇보다도 외적인 형식보다는 내면의 민족정체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의식 보다도 한 개인으로서의 살기위한 필요한 요건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13 민족정체성/재일동포가 참정권을 행사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생각

민족 정체성	재일동포가 참정권을 행사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중 어느 쪽이 크다고 생각하는가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크다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크다	비슷하다	부정적인 효과가 조금크다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크다
강	5.7%	11.5%	49.4%	24.1%	9.2%
중	2.0%	17.3%	57.0%	18.9%	4.7%
약	3.1%	13.8%	47.5%	25.6%	10.0%

재일동포의 참정권에 관한 문제로, 민족정체성 강약과 재일동포가 참정권을 행사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중 어느 쪽이 크다고 생각하는가와의 관련성을 보기로 한다(표13). 그 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정체성 강약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가 많았고,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인터뷰조사에 의하면 국외에 사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표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향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민족정체성 강약에도 차이가 없이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재일동포가 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거주 희망에 관한 생각과 민족정체성 강약과의 관계를 보면, 표14와 같이 둘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전부 받아들여야한다」가 많았으며,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와 「잘 모르겠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재일동포는 우리 동포로 그들이 원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표14 민족정체성/재일동포가 한국에서의 거주 희망에 관한 생각

민족 정체성	재일동포가 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전부 받아들여야 한다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잘 모르겠다
강	32.2%	60.9%	2.3%	4.6%
중	24.7%	63.6%	1.3%	10.3%
약	22.5%	56.9%	5.0%	15.6%

\*\*p<0.01

## 5. 결론

대학생들의 민족정체성 강약에 따른 재일동포에 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서 검토해 보았다.

첫째, 한국 대학생들의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문제로, 「민족정체성 강약」과 「재일동포에 대한 친근감 정도」·「재일동포 문제를 얼마나 우리 일로 생각하는가」·「재일동포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와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세 항목에 있어서 전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동포에 대한 친근감에 있어서는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재일동포에 대한 친근감이 높았으며,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친근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재일동포 문제를 우리의 일로 생각하고 있고,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재일동포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재일동포를 한국인으로,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일본인, 그냥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재일동포가 한국에 대한 관심문제로, 「민족정체성 강약」과 「재일동포가 한국·한국인에 대한 관심」·「재일동포의 한국과 일본 간의 친근감 정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족정체성 강약」과 「재일동포가 한국·한국인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매우 관심과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관심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민족정체성 강약」과 「재일동포의 한국과 일본 간의 친근감 정도」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민족정체성 강약에 상관없이 한국보다 일본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재일동포가 한국·한국인에 대한 관심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친근감에서는 일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민족정체성과 관련이 없었던 것은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질문을 하면 민족정체성이 그대로 반영되겠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말한다면 민족정체성이 곧바로 전달되기 보다는 보편적 성향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민족정체성과 보편적인 일반인의 생각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11에서 본 것과 같이 민족정체성이 강하면 재일동포가 거주국에서 적응을 잘하고 모범시민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의견이 강하다. 또한, 표12와 같이 민족정체성도 중요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표6을 보면 민족정체성이 작음해 한국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재일동포는 일본에서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일본과 더 가깝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 또한 보편적인 일반인의 생각으로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일본과 더 가깝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족정체성이 약한 사람은 민족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민족정체성이 배제된 보편적인 일반적 성향을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4와 같이 민족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은 재일동포를 일본인,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이 더 가깝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가 간의 관계가 그 나라 민족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문제로 「민족정체성 강약」과 「한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우호관계」·「재일동포와 재미동포에 대한 친근감 정도」·「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인에 대한 영향」·「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재일동포에 대한 영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우호관계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있어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미국,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일본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일동포와 재미동포에 대한 친근감 정도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둘 다 우리 동포로 인식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가에서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매우 그렇다가 많았으며,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그렇지 않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재일동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간의 관계가 나빠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민족정체성 강약과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일동포에 관한 정책문제로 「민족정체성 강약」과 「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생각」·「정부가 재일동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할 부분」·「재일동포가 참정권을 행사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생각」·「재일동포가 한국에서의 거주 희망에 관한 생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으로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모범시민으로 잘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재일동포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민족정체성을 중요시 하고 있었다. 재일동포가 참정권을 행사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생각으로는 민족정체성 강약에 상관없이 비슷하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정적인 효과의 의견이 많았다. 즉, 국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참정권 문제로 민족정체성 강약과는 상관없이 우려의 생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일동포가 한국에서 살기를 희망한다면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전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민족정체성이 약할수록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모르겠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일동포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민족정체성에 따라서 재일동포에 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우리 민족으로 생각,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는 입장이 강했다. 그러나 민족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은 재일동포와 우리는 별개로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표4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재일동포를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민족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은 재일동포를 일본인, 그냥 외국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일본에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건너가 과거의 어려운 역경을 겪고 지금까지도 많은 차별 속에서 살고 있는 재일동포사회를 좀 더 이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많이 의식하고 살지 않았던 이방인과 같은 존재인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에 대해서 무관심한, 민족정체성이 약한 젊은이들은 애국심과 민족의식 고양 등으로 재일동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재일동포가 한국·한국인에 대한 관심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친근감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민족정체성 강약에도 변함없이 똑같은 결과로 나왔다. 다음 연구과제로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인



식을 재일동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대학생들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을 민족정체성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지만, 나아가 재일동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배대한(1994) 「한민족 정체성문제와 교육개발」 『해외동포』 63, 20-25쪽.
- 양계민(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 387-421쪽.
- 재외한인학회(2002)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분석」 『재외한인학회 단행본』 1-11쪽.
- 黃慧瓊(2008)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변화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36, 451-467쪽.
- \_\_\_\_\_ (2014) 「한국 대학생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60, 411-429쪽.
- 綾部恒雄(1985) 「エスニシティの概念と定義」 綾部恒雄編 『文化人類学Ⅱ』 アカデミア出版会、8-19頁.
- 馬越徹(1989) 「在日韓国・朝鮮人子女の教育における「民族性」保持に関する一考察-日本教育の「国際化」再考-」 『名古屋大教育学部紀要』 36、315-325頁.
- 江淵一公(1982) 「日系アメリカ人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する考察」 綾部恒雄編 『アメリカ民族文化の研究』 弘文堂、139-199頁.
- \_\_\_\_\_ (1985) 「エスニック・バウンダリとスティグマーニュー・エスニシティの視角」 『文化人類学2』 アカデミア出版会、20-33頁.
- 大沼保昭(1980) 「在日朝鮮人の法的地位に関する一考察」 『法学協会』 97(2)、192-269頁.
- 梶田孝道編(1996) 『国際社会学(第2版)-国家を超える現象をどうとらえるか-』 名古屋大学出版会、337頁.
- 金台權(2002) 「在日朝鮮人も地域と共に生きている」 『市民活動情報誌』、37-40頁.

- 黒木宏一(2011)「西成区北西部における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住まいの現状と課題」『コリアンコミュニティ研究』、24-29頁.
- 五味田恵美子(1996)「川崎コリアタウン構想をめぐる地域社会」『お茶の水地理』37、72-84頁.
- 辛基秀(1983)「在日朝鮮人差別の歴史と現状」『部落解放』206、250-258頁.
- 申鉉夏・権藤与志夫(1982)「在日韓国人子弟の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する調査研究」『九州大学比較教育学部研究施設紀要』33、55-76頁.
- 杉原達(1991)「在阪朝鮮人の渡航過程—朝鮮・済州島との関連—」杉原薫他編『大正／大阪／スラム—もうひとつの日本近代史』新評論、215-248頁.
- 関根政美(1994)『エスニシティの政治社会学』名古屋大学出版会、5頁.
- 高橋満(1996)「在日韓国・朝鮮人の地域教育運動と社会教育」『東北大学教育学部 研究年報』44、65-92頁.
- 趙文基(2009)「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介護問題—二つの社会調査にもとづいて」『桃山学院大学社会学論集』43、51-77頁.
- 仲尾宏(2013)「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健康と福祉(7)在日コリアンの年金問題の今後」『Sai 編集委員会』、60-62頁.
- 朴一(1999)「アジア観察99(19)国会揺さぶる在日コリアンの参政権問題」『論座』49、180-185頁.
- 朴慶植(1965)『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未来社.
- 朴在一(1979)『在日朝鮮人に関する総合調査研究』新紀元社、1-36頁.
- 原尻英樹(1986)「在日朝鮮人のエスニシティ—筑豊A地区の事例より—」『民族学研究』51(3)、275-289頁.
- 福岡安則(1993)『在日韓国・朝鮮人』中公親書、76-107頁.
- 黄慧瓊(2001)「川崎市の在日コリアンにおける食文化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正月料理を主たる対象として—」『日本文化学報』10、341-359頁.
- \_\_\_\_\_ (2002)「大阪市の在日コリアンにおける食文化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第1報)—行事食を主たる対象として—」『日本家政学会誌』53-7、671-680頁.
- 星野命(1985)「民族的帰属意識」綾部恒雄編『文化人類学Ⅱ』アカデミア出版会 34-45頁.
- 山田貴夫(2010)「地域から考える外国人参政権問題」『月刊自治研』52、10-14頁.
- Isajiw,w.w. (1974)“Definitions of Ethnicity”, Ethnicity1(2), p.117.
- Barth,F.(1969) “Introduction: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Boston:Little Brown. pp.9-38.
- Cohen,R.(1978) “Ethnicity problem and Focus in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7, pp.379-403.

## 要 旨

本稿は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からみた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認識を大学生を中心にみたものである。

その結果、一つ目は、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関心の問題として、「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強弱」と「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親密感」・「在日コリアンの問題をどのぐらいわれわれのことだと思われるか」・「在日コリアンはどの国の人なのか」との間に関係をみた結果、関連がみられた。

二つ目は、在日コリアンが韓国に対する関心の問題として、「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強弱」と「在日コリアンの韓国・韓国人に対する興味」・「在日コリアンの韓国と日本との親密感の程度」との間に関係をみた。その結果、前者においては関連がみられ、後者においては関連がみられなかった。

三つ目は、国と国との関係がその国の人と、そこに住んでいる在日コリアンにも影響を与えるかという問題である。「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強弱」と「韓国のアメリカと日本に対する友好関係」・「韓国と日本の関係が悪くなると日本人に対する影響」・「在日コリアンと在米コリアンに対する親密感の程度」・「韓国と日本の関係が悪くなると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影響」との間に関係をみた。その結果、前者の二つには関連がみられ、後者の二つにおいては関連がみられなかった。

四つ目は、在外コリアンに関する政策問題として、「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強弱」と「政府の在外コリアンの政策に関する意見」・「政府が在日コリアンにいちばん優先に支援する部分」・「在日コリアンの韓国での居住希望に関する意見」・「在日コリアンの参政権を付与した場合、及ぼす影響」との間に関係をみた。その結果、前者の三つにおいては関連がみられ、後者の一つにおいては関連がみられなかった。

キーワード：大学生、在日コリアン、在米コリアン、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認識、親密感、歴史の誇り、韓民族の誇り、参政権、政策

투 고 일 : 2015. 2. 28  
심 사 일 : 2015. 3. 14  
계 재 확 정 일 : 2015. 4. 4